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5월 3일(주일) 제1047호

가정의 달 5월! 사랑 넘치는 5월!



5월, 가정의 달이다. 보석 같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달이다. 어느 달보다 고이 간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기념일이 많다.

5일은 어린이 날이다. 어린이들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1923년 제정됐다. 8일은 아버지 날이다. 효 사상 양양과 전통 가족제도 계승 및 발전을 위해 1973년 만들어졌다. 11일은 입양의 날이다. 입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2003년 시작됐다.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은덕에 감사하고, 존경을 표하고 추모하자는 뜻으로 1964년부터 지켰다. 18일은 성년의 날이다. 1973년 만들어진 성년의 날은 만 20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부여하는 날이다.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가족해체 예방을 위해 2007년부터 달력에 표시되기 시작했다. 24일은 성령강림주일이다. 오순절(五旬節)에 강림한 성령을 기념하는 축절이다. 강림한 성령과 함께 사랑과 감사, 은혜와 존경을 표현하는 뜻 깊은 5월의 주인공이 되자.

네팔 지진 피해 현장에 긴급구호팀 급파

의료팀과 긴급구호팀 내일(4일) 출국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이 네팔 지진피해 현장에 급파된다. 5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의료팀 7명(의사 5명, 간호사 2명)과 구호팀 15명이 네팔 지진 피해 현장에 투입된다. 지난 1일 출국한 선발대는 현지 선교사와 함께 온누리교회 구호팀이 투입 될 지역 사전답

사를 마쳤다.

NGO 더멋진세상을 중심으로 구성된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은 네팔 지진피해 현장에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생필품(쌀, 녹두, 라면, 생수 등)과 임시 주거용 천막 설치 및 담요를 나눠 줄 예

정이다.

긴급구호팀이 투입될 지역은 피해가 심각한데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약한 고르카(Gorkha)지역이다. 지진 진원지 부근이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차로 5시간 이동해야 한다. 현장에서 접근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부터 도울 예정이다. <관련기사 10면>

5월 러빙유 캠페인 '개인 컵 쓰기!'

5월 러빙유 캠페인(Loving U)은 개인 컵 쓰기다. 환경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는 일석이조다.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지 말고, 개인 컵을 들고 다니자. 작은 실천이 환경문제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5월 한 달 동안 온누리

교회 모든 커피숍에서 개인 컵을 사용하면 아메리카노에 한해 500원을 할인해준다. 새 텀블러도 수거한다. 수거한 텀블러는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7면>
문의: 02-3215-3434, 3436

5월 비전헌금 '청년진로소명 사역' 지원

5월 10일 봉헌하는 5월 비전헌금은 '청년진로소명 사역'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

출 32:1~14

“중보기도가 역사를 바꾸고, 한 민족에게 내려진 진노까지 거두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서 귀 기울이고, 대화하면서, 마음을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작심삼일’은 사람의 결심이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를 설명해주는 고사성어입니다.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삼초’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부패하고, 연약한 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서 아론에게 자신들을 이끌어줄 신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해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여러 번 서약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숭배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한 명령을 그토록 빨리 저버리고 스스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우상을 부어 만들고는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신이다’라고 했다”(8절).

아담이 창조되고 난 뒤에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건짐을 받고 나서 얼마나 빨리 죄를 범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나서 얼마나 빨리 우상을 섬겼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얼마나 빨리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익숙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모세의 부재가 그 시작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을 주시고, 성막의 청사진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면 며칠이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모세와 친밀함을 나누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검증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이기지 못

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자신들을 이끌어줄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들을 이끌어줄 신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종교적 본성이 표출된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마음속에 숨어있는 종교적 본성이 살아납니다. 위기에 처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 놓이면 초월적인 존재를 의지하는 심성이 발동합니다. 평소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음 앞에 서면 기도를 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본성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불안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기보다 자신들의 때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우상숭배의 본질

우상숭배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인간이 신을 조종하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을 만들어 순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아론에게 있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자, 모세와 함께 백성들을 이끌던 리더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맞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훈계하지도 않았습니까. 여러분, 대중들의 어리석은 요구를 두려워하는 지도자는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백성들보다 더 큰 책임이 아론에게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아론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아론은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게 악을 행하는지 말입니다. 그들이 내게 ‘우리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내어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뭐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말했지요 ‘금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다 빼내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내게 금을 가져왔고 내가 그것을 불 속에 던져 넣었더니 이 송아지가 나온 것입니다!”(22-24절).

아론의 대답이 기막합니다. 자기반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일이 백성들이 악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줄 아냐고 말합니다. 더 가관인 것은 그들이 자신에게 금을 가져왔고 그것을 불 속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설명합니까. 불 속에 금을 던지면 송아지가 튀어나옵니까. 당황한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무책임한지 모릅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변명과 도피, 회피로 가득한 지도자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이런 비슷한 말을 듣습니다. 금을 불 속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고 하는 것처럼 이해되지 않는 해명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진노하시고, 백성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9-10절).

이 사건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진멸하실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계명을 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를 형상화했습니다. 이것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2계명도 어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마치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아론과 그 지도자들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 모습 그대로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비슷하게 드리고, 사이비 유사종교를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1, 2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나머지 8계명도 당연히 어긴다는 것입니다. 도미노현상처럼 발생합니다. 1계명이 무너지면 2계명은 금방 무너집니다. 2계명이 무너지면 나머지 계명도 무너집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끊어버리

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의 청사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의 청사진을 받고 있는 동안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막과 인간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대조를 이룹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집이고, 금송아지는 사람을 위해 만든 우상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금송아지는 인간의 작품입니다. 성막은 여러 재료를 가지고 세심한 기술과 공정을 통해서 만드는데, 금송아지는 금이라는 재료 한 가지로 총동적이고 즉흥적으로 만듭니다. 성막은 자발적으로 드린 예물로 만들지만, 금송아지는 아론의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낸 재물로 만들었습니다.

은혜의 문을 발견한 모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여가서 진멸해 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듯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지만, 모세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골치 아픈 백성들을 멸하고, 모세를 아브라함의 위치에 두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이미 형성된 민족을 이끄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지도력을 인정받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모세가 아브라함과 같이 혈통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분명 기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 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11~13절).

(13편에 계속)

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20주년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기도모임에서 세계적인 ‘남성부흥운동’으로 성장
62개국 247개 도시에서 무려 30만 명 수료

검정색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남성들의 모습이 마치 얼룩말 같다. 이구동성으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고 외치는 모습은 얼룩말이 초원을 달리는 것처럼 힘차다. 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이하 아버지학교)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현재까지 62개국 247개 도시에서 무려 30만 명이 수료했다. 교회를 넘어 사회로, 한국을 넘어 세계로, 아버지에서 청소년으로 그 지경을 계속 넓혀가고 있다. ‘남성부흥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아버지학교 20년을 돌아봤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아버지학교는 1995년 10월 두란노서원에서 시작되었다. 가정의 문제를 아버지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실추된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한 운동이었다. 올바른 아버지상을 회복해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목적이다.

황은철 목사(현 브라질 동양선교회 담임목사)와 도은미 사모가 아버지학교를 기획했다. 1996년 황은철 목사 부부가 브라질로 떠나면서 김성묵 장로가 맡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아버지학교가 문을 열자마자 남자들끼리 숙제를 타놓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특히 좋았다는 호평이 쏟아졌다. 아버지학교에 참가하고 싶다는 지원자들이 해마다 늘었다.

아버지학교 1기 65명이 수료한데 이어 1998년 15기까지 무려 1400명이 수료했다. 아버지학교가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1997년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부터다. 금융위기로 직장을 잃은 많은 아버지들이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 발로 아버지학교 문을 두드렸다. 한 기수에 120명씩 등록하는 폭발적인 현상이 일어났다. 대구, 부산, 포항 등지에서 아버지학교를 열어야 한다는 요청이 쇄도했다. 그때부터 아버지학교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2000년부터 ‘아버지학교운동본부’로 명칭을 통일했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만들고,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중국 연변, 미국 포틀랜드, 시애틀,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캐나다, 유럽, 동남아시아, 호주와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전 세계 62개국으로 퍼져나갔다. 피부색과 언어는 달라도 가정의 중심은 아버지라는 인

식은 같았다. 아버지학교가 국경만 초월한 것이 아니다. 대상도 폭을 넓히기 시작했다. 2003년 목회자 아버지학교 1기가 문을 열면서 전문적인 목회자 사역을 시작했다. 교도소 아버지학교(여주교도소)도 시작했다. 이는 교정 역사를 새로 썼다는 찬사를 받으며 매스컴에도 보도됐다. 2004년에는 현대 고등학교에서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아버지학교가 문을 열었다. 지금까지 62개국 247개 도시에서 30만 명이 아버지학교를 거쳐 갔다. 국내에만 76개 지부가 있다. 한국교회 역사에 유례없는 남성부흥운동의 시작과 끝이 바로 아버지학교다.

맞춤형 아버지학교와 어머니학교

아버지학교는 대상에 따라 일반 아버지학교와 열린아버지학교, 예비 아버지학교 등으로 나뉜다.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아버지학교는 국내 여러 지역의 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기독교적 성향의 프로그램을 고수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IMF 이후 아버지학교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서 일반인들도 많이 참가하고 있다.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 열린아버지학교가 생겼다. 회사, 학교, 사회단체, 관공서, 정부 부처 등의 요청으로 종교적인 색채를 배제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전력, 현대자동차, 효성, 서울메트로, 이수화학, 고려아연 등에서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아버지학교를 모델로 지자체와 이웃종교(천주교 성요셉아

버지학교, 불교에서도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교도소 아버지학교, 군부대 장병과 미혼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아버지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감동캠프, 부부가 함께하는 부부학교 등도 진행하고 있다. 소외계층 아버지(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노숙자)를 위한 아버지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도박중독 예방 활동, 사회정화운동 등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월간 〈아버지〉를 발간하고, 두란노어머니학교도 지원하고 있다. 16년 전 시작된 어머니학교는 지금까지 40개국에서 10만 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아버지학교와 더불어 가정을 바로 세우는데 한 몫하고 있다.

바른 아버지로, 바른 남편으로

아버지학교는 5주 과정이다. 보통 토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개설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6-8명이 한 조가 된다.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선배가 조장이 되어 토론을 진행한다. 조원들 간의 토론과 고백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첫째 주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주제다. 아버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자신은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 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이다. 기부장적인 아버지를 싫어했으면서도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한다. 나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 과제가 주어진다. 또 아내와 자녀들에게 축복기도를 해주라고 권한다. 가족들과 친밀감을 높이는 방법도 전수한다.



둘째 주 주제는 ‘아버지의 남성’이다. 사회에 퍼져 있는 잘못된 남성문화를 되짚어보는 시간이다. 카드 값에 허덕이면서도 술자리에서 폼 나게 카드를 굶는 체면문화, 열심히 일만 하는 모습이 남자답다고 생각하는 일 문화, 여자에게 얼마나 어필하느냐로 남자의 가치를 평가하는 섹스문화, 음주문화, 남성중심의 레저문화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눈다. 아내에게 편지쓰기가 과제로 주어진다.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를 적어야 한다. 셋째 주 주제는 ‘아버지의 사명’이다. 남자의 가장 큰 성공은 갑부가 아니라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임을 가르친다. 아버지와 자녀가 가까워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내와 데이트하기가 과제다. 둘째 주에 적은 아내를 사랑하는 20가지 이유를 직접 들려줘야 한다.

넷째 주 주제는 ‘아버지의 영성’이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잠시 허락한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이다. 자녀들과 알데일 데이트가 과제로 주어진다. 자녀와 단 둘만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자녀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를 적어서 들려줘야 한다. 아버지학교 수료소감문도 쓴다.

다섯째 주는 졸업식이다. 아내와 자녀들도 참석한다. 집에서 손수 준비해온 도시락과 다과를 나누며 조원들과 소감을 나눈다. 부부가 각자 써온 편지를 서로에게 읽어주고, 아버지학교를 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한다. 하이라이트는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이다. 남편이 아내 앞에 무릎 꿇고 아내의 발을 씻겨주면서 바른 아버지로, 바른 남편으로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다.

문의: 02-2182-9100



아버지학교 비전나이트에서 기도하는 리더십들.



아버지학교 20년에 대한 소회(所懷)

사역칼럼 김성묵 장로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하기 몇 년 전 내게 물으셨다. “아버지학교가 여기까지 올 줄 아셨나요?” 나는 “아니요, 전혀 상상 못 했어요. 목사님은 예측하셨나요?”라고 반문했다. 하 목사님은 빙긋 웃으며 말씀하셨다. “나도 몰랐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 아버지학교가 여기까지 올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의 아버지학교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 교회를 넘어 사회로 아버지를 넘어 청소년에게까지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아버지학교는 1995년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에서 자그마한 기도모임으로 시작했다. 조직도, 자금도 없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열정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 아버지학교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받았었다. “아버지학교가 무슨 학교냐?”, “그리 희한한 이름의 학교가 있냐?”, “사고 친 아버지들이 들어가는 학교인가?”라는 수많은 비아냥거림을 들어야 했다. “관심 없으니 당신들이나 잘 하쇼”라는 말도 수차례 들었다. 그러던 사람들이 아버지학교를 경험하고 달라졌다. 기정이 변했다. “우리 아빠가 변했어요”, “이게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아버지학교를 다녀온 후 저를 왕비처럼, 아이들은 왕자와 공주처럼 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라며 눈물을 글썽이던 수많은 가족들의 표정과 고백을 잊을 수가 없다. 지난 20년을 돌아켜 보면 여러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개인적으로는 대장암 수술과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헌신도 있었다. 나의 영원한 멘토이자 사두란노 아버지학교운동본부의 초대 이사장이셨던 하 목사님. 아버지학교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갈 때 지방으로 출발하기 전에 하 목사님은 헌신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여러분은 아버지학교 전도사입니다”라며 격려해 주셨다. 아버지학교가 교회를 넘어 교도소, 관공서, 군대, 기업체, 학교 등으로 확산되자 매우 기뻐하셨다. 아버지학교는

교회의 좋은 내용들을 사회로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이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며 본인 스스로가 아버지학교 전도사가 되어 주셨다. 황은철 목사님과 도은미 사모님도 빼놓을 수 없다. 이분들은 1995년 아버지학교를 처음 개설하고, 아버지학교의 씨앗을 뿌리고 기초를 닦은 분들이다. 이 분들이 처음을 잘 세워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고장한철 형제님도 잊을 수 없다. 53세의 나이에 직장인으로, 가정으로, 아버지학교의 헌신자로 열심히 섬겼다. 그는 아버지학교 강의 현장에서 쓰러져 하나님 품에 안긴 아버지학교 첫 번째 순교자다. 지난 20년간 영적 리더십으로 평신도들과 비전을 함께 나누며 서울에서 한라로, 세계로 현장을 누비고 다녔던 권준 목사님과 그 외 여러 목사님들, 부족한 나를 믿고 따라와 준 많은 동역자님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들의 눈물과 땀, 기도와 헌신으로 아버지학교는 단순한 세미나를 넘어 운동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그들의 열정과 사랑이 아버지학교를 교회와 세상을 깨우는 거대한 위대한 영적 운동, 성령 운동으로 바꾸어 놓았다. 아버지학교는 하나님의 꿈이며, 시대적 소명이며, 우리의 희망이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땅 끝까지 가는 아버지운동’을 펼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시행착오도, 실수도 많았다. 나의 미숙함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다 아버지학교를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 지금도 나는 힘들 때마다 하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을 묵상한다.

“인생은 축복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 받고 사는 것입니다. 사명 받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남은 삶도 가정회복, 교회부흥, 사회변화 그리고 수직선교(가정선교)의 축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고자 다짐하며 기도한다. 아버지학교의 지난 20년은 숨 가뻔했지만 감사했다. 앞으로 세상과 교회와 소통하며 새로운 20년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 간증_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어느 재소자

“좋은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 서울구치소에서

차가운 봄비가 응어리진 가슴을 적시던 날,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 이런 곳까지 와주셔서요. 그래서 더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수감생활을 하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구속된 이후 ‘이번 일을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보자’고 다짐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치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학교가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학교는 저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앞서 아버지학교를 경험한 선배들이 들려준 이야기들을 통해 정말 큰 감동을 받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장모님께서 제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편지에는 장인어른도 몇 해 전 아버지학교를 수료하고 봉사한 적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척 좋은 교육이니 잘 받으라는 격려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아버지학교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결혼하던 날 교회에서 아버지학교가 열려서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아버지들을 보았다더군요. 봉사자와 지원자들이 군데 군데 앉아서 담소 나누던 모습이 무척 보기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학교는 우리 가족에게 낯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이미 마음 속에 아버지학교를 담고 기다리고 있었나봅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사위로서 바로 서기를 바라는 가족들의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을 실망시킨 것을 반성하고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제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아버지학교에서 배운 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아내와 희망찬 미래를 엮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면 사랑을 듬뿍 담아 안아주겠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축복을 빌어주며, 좋은 아버지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하는 포옹을 할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섬겨주신 과천 아버지학교 봉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저처럼 한순간의 실수로 과오를 범한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학교를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물 속에서 당신을 만나게 하시고, 이등바등하던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인천 온누리교회 창립 9주년



인천 온누리교회 창립 9주년 감사예배 모습.

성령, 기적, 고난을 체험하는 인천 온누리교회

사랑의 쌀독 오픈 ...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세요”

인천 온누리교회가 올해로 창립 9주년을 맞이했다. 인천 온누리교회는 2006년 4월 30일 국내 여덟 번째 캠퍼스로 창립됐다. 성도 50명이 채 안 되던 교회가 지금은 160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9년 새 성도가 30배 넘게 늘었다.

지난달 28일 인천 온누리교회 창립 9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설교는 ‘Acts 29를 써가는 교회’를 주제로 박종길 목사가 했다. 이날 박목사는 성도들에게 “인천 온누리교회가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고난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어 Acts 29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교회 창립 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한껏 고무된 모습이었다. 박목사는 “인천 온누리교회는 인정적이고 특별한 새로운 곳이 있다. 늘 첫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10년, 20년을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은정 권사는 “단합하고 화합된 모습으로 창립 9주년 행사를 준비한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고 했고, 박명주 집사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인천 온누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함께 새 성전과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에 더욱 매진하자”고 제안했다.

인천 온누리교회 창립 9주년 예배는 성도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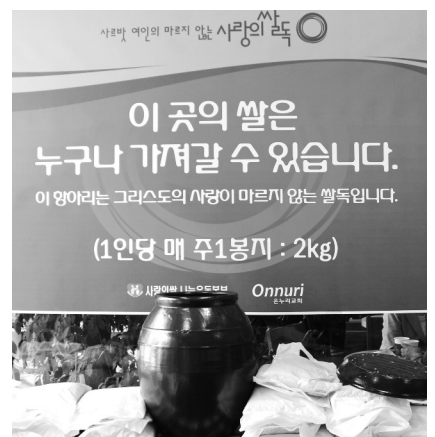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한 축제 한마당이였다.

사랑의 쌀독이 헌판식을 갖고 이웃사랑 실천을 시작했다. 사랑의 쌀독에는 성도들이 헌납한 쌀이 가득 채워져 있다. 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면 된다. 성도가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사랑의 쌀독을 준비한 정형권 목사는 “형편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사랑의 쌀독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사랑의 쌀독은 인천 온누리교회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12시에 1인당 2kg씩 가져갈 수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인천 온누리교회 1층 로비에 있는 사랑의 쌀독.



목회 칼럼 서경남 목사(인천 온누리교회)

인천 온누리교회의 꿈

인천 온누리교회에 부임한지 1년 반 남짓 되어간다. 인천 온누리교회가 창립 9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공진수 목사, 손신국 목사, 이준호 목사가 인천 온누리교회를 섬겼다. 이 선배들이 인천 온누리교회의 기틀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는 뿌리가 깊게 심어져야 건강하고, 흔들림 없는 법이다. 선배들의 헌신 덕분에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었다.

현재 인천 온누리교회 본당은 지하 2층에 위치해 있다. 지하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성도들의 예배에는 힘이 있고, 감동이 있다. 예배를 갈망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크고, 강한 것이 인천 온누리교회의 특징이다.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성령이 인도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있다.

인천 온누리교회는 예배당을 송도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 크게 세 가지 비전을 품고 있다.

첫째, 선교의 비전이다. 그 옛날 토마스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을 통해 조선에 들어와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모든 선교사들을 인천에서 파송하고 싶은 비전과 꿈이 있다.

그렇기에 송도로 예배당을 이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많은 성도들이 기대와 꿈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

둘째, 차세대에 대한 비전이다. 인천 온누리교회는 현재 1600명의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다. 그 중에서 500명이 차세대다. 차세대 비율이 30%가 넘는다. 이들을 놓치면 다음 세대는 없다.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차세대들을 반드시 품어야 한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전이다. 흔히 안

산을 외국인 근로자의 땅이라고 한다. 하지만 숫자로 따지면 인천에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다. 인천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화이트칼라들이 많다. 온누리미션을 담당하고 있었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다르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다양해졌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사역방향이 다양해져야 한다.

나는 어릴 때 한국을 떠나 남미에서 살았다. 그래서 다문화권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 나 자신도 어찌 보면 외국인 근로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미국에 있을 때도 다문화권 예배를 드리고 섬겼다. 필리핀, 스페인, 미국, 한국 등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도 있었다.

두란노서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용조 목사님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

의 하나님을 날마다 선포하라고 하셨다.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날마다 선포할 것이다.

더불어 다른 캠퍼스와 연합해 감당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지난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인천 캠퍼스 성도들이 특송을 하러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간 적이 있었다. 그날 새벽기도가 끝나고 한 성도님이 내게 말했다.

“CGNIV로만 보던 서빙고 본당에 서는 것이 꿈이었는데 오늘 그 꿈을 이뤘어요. 인천 온누리교회 다니면서 오늘이 가장 행복합니다”

인천이 서울과 거리가 멀다보니 정서적으로도 멀게 느낀 것 같다.

인천에 들란다면 꼭 인천 온누리교회에도 들어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예배드리는 장소는 달라도 우리는 하나다. 온누리교회다.

‘러빙유 청년벤처대회’ 참가자 모집

지역과 사회, 공동체 돕는 아이디어 공모
6월 5일까지 참가 신청 ... 39세 이하 청년 대상

온누리교회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된다. 러빙유(Loving U) 청년벤처대회가 막 오른다. 6월 5일 오후 5시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역과 사회, 공동체를 돕는 아이디어가 있는 온누리교회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지역과 사회, 공동체를 돕는 아이디어는 나무를 심는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환경문제와 멸종 위기동물들을 돕고 있는 ‘트리플래닛’과 노숙인들의 자립을 돕고 있는 잡지 〈책이슈〉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의미한다.

참가대상은 만 39세 이하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출석교인으로 성경적 원리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예비창업가나 창업한지 3년 미만인 사업자다. 개인 또는 5인 이하 팀으로 지원 가능하다. 타교인도 가능하지만 팀원 중에 1명 이상은 반드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소속 성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참가신청을 원하는 성도는 지원서와 소셜비즈니스모델 기술서, 팀 역량 기술서를 제출해야 된다. 지원서는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 홈페이지(simonnuri.org)에서 양식을 내려받으면 된다.

러빙유(Loving U) 청년벤처대회는 사회선교본부와 온누리교회 크리스천CEO포럼(이하 CCF)이 함께 주최한다. 6월 5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고 1차로 선발된 20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사회적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2차로 8팀을 선발해 심층멘토링에 들어간다.

최종 3팀이 결선에 진출한다. 대상에게는 700만원, 최우수상은 500만원, 우수상은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1년 동안 CCF 경영컨설팅(법률, 회계 등)도 지원해준다. 대상수상자에게는 CEO스쿨 입학장학금(1명)과 이재훈 담임목사



와 함께 하는 저녁식사도 제공된다.

사회선교본부는 “지역과 사회 그리고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어떤 아이디어도 좋다. 성경적 원리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도전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접수: simonnuri@gmail.com

문의: cc_forum@naver.com, 02-570-7094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러빙유 캠페인 2탄
‘환경운동’



환경도 지키고,
건강 지키는
개인 컵을 쓰자

이웃에게 전달할 ‘새 텀블러’ 수거

5월 러빙유 캠페인(Loving U)은 개인 컵 휴대하기다. 환경을 사랑하고 보존하기 위한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지 말고 개인 컵을 휴대하자. 우리의 작은 실천이 아름다운 환경을 만드는데 큰 보탬이 된다.

5월 한 달 동안 온누리교회 모든 커피숍에서 개인 컵을 사용하면 아메리카노에 한해서 500원을 할인해준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은 새 텀블러도 수거한다. 수거한 텀블러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쓰지 않는 새 텀블러는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지하 1층 온누리 나눔장터 또는 선교관 주차장 수거함으로 가져오면 되고, 양재는 사랑홀 앞 금호사역점에서 예배 전후에 수거한다.

일회용 컵의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종이컵은 일종의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으로 내부를 코팅한다. 문제는 폴리에틸렌의 녹는 온도가 불과 105~110°C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폴리에틸렌이 녹을 때 나오는 비스페놀A는 강화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재료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는 개인 컵 휴대하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자.

문의: 02-3215-3434, 3436



칼럼 유미호(한국교회환경연구소 실장)

지구가 견딜 수 있는 한계치, 2°C

봄을 맞아 약하다 익한 생명들이 세상에 나오더니 어느새 꽃이 활짝 피었다. 이제 진정 봄을 실감한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 봄날을 즐기려니 황사와 미세먼지가 외출을 꺼리게 한다. 해가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변화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는 더욱 긴박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녹아내리고 있는 북극빙하, 사막화, 기후재난 등을 막으려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지구가 견딜 수 있는 적정수준(350ppm)까지 낮추는 ‘350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80년대를 통틀어 유례없이 높은 농도가 기록되고 있다. 400ppm을 넘는 날이 여러 날 지속되었다.

이대로 가다간 지구의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3°C 오르는 건 시간문제다. 2500년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종의 20~30%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2800년이면 3°C 이상 올라가 90% 이상이 멸종할 것이라고 한다. 별다른 예방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금세기말 4°C까지 오른다고 한다.

정말 1도의 파괴력이 엄청나다. 지난 100년 동안 상승한 0.8°C를 봐도 동식물의 약 52%가 서식지를 극지방과 고지대로 옮기고 있다. 62%가 봄이 빨라진 변화된 조건에 적응하려고 개화와 번식 또

는 이동시기를 앞당겼다. 바다에서는 생존 가능한 수온을 찾아 북쪽으로 땅에서보다 7배나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연간 7km).

농작물의 생산량 감소, 곡물가격 급등, 폭염, 가뭄, 홍수, 산불 등의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 이는 빈곤층과 노년층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감염, 만지, 오존 등이 한곳에 머물러 초과 사망자가 늘고 있다. 2100년이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초과 사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정해진 지구상승온도가 2°C다. 비교시기는 산업혁명 이전이다. 지구가 지탱할 수 있는 한계치,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용 가능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치다. 상승온도가 2°C가 넘으면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때의 노력은 별 의미가 없어진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회의(IPCC)가 지난해 제5차 보고서를 통해 지구 온도 상승을 2°C 이하로 막기 위한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을 제시한 것도 그 때문이다. 산업화 이후 2900GtCO₂로 묶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이미 2011년까지 그의 2/3인 1900GtCO₂를 사용한 것이 문제다. 남은 양으로 살아가려면 2500년엔 40~70%를 줄이고, 2800년~2100년에는 인위적 배출을 거의 없애야 한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방안을 담은 ‘자발적 기여 공약(INDCs)’을 제출할 것이다. 올해 말 IPCC 총회(파리)는 그에 기초하여 2020년부터 적용될 새롭고도 확고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합의할 것이다. 지구는 물론 우리에게 남아있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걸맞은 목표를 세우고 제대로 이행해가기를 기도할 뿐이다.

지구 동산을 거니시던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 기후변화를 초래한 부끄러움을 무화과 앞으로 숨기고 변명하기보다 곧바로 죄를 고백하고 2°C 억제에 위한 조금 불편한 삶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세계가 2°C의 기준점을 정할 때, 배려 받지 못한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태평양 섬나라들과 연안지역 공동체까지 생각해 가까이 ‘1.5°C 이하’라는 더 낮은 목표를 세워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한다.

기후변화 시대의 ‘지극히 작은 자들(마 25:40)’과 지금도 한결 게 버티고 있는 지구에게, ‘하늘 나는 새들(마 6:26)’과 같이 탐욕을 내려놓고 ‘생명을 택하는(신 30:19)’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약속은 분명 2°C 상승을 막아내는 희망이 될 것이라 믿는다.

청년들을 만나다

영혼의 반창고 ‘여호수아공동체’

쉽 없이 찾아가 섬기고, 보살피고, 안아주는 청년들

여호수아공동체(담당 김승수 목사)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3,000명의 예배자와 100명의 선교사’를 꿈꾸고 있다. 이 시대 청년부흥의 롤모델(role model)이 되는 것이 소망이다.

여호수아공동체는 온누리교회에서 가장 많은 청년들이 출석하고 있다. 매주일 2,000여 명의 청년들이 예배드리고 있다. 여호수아공동체에는 12개 그룹(Ace, Welcome, wow, Prism, J.com, Shine, Yes, Smile, Vision, F#, J.cafe, With)이 있다. 각 그룹마다 은사와 비전을 따라 섬기고, 양육하고 있다.

이웃사랑 실천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일일 아웃리치(ODO: One Day Outreach)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안산M센터, 남대문 쪽방촌, 천사 의집(장애인), 보육원(명진들꽃사랑), 안성하나원 등지를 찾아가 섬기고 또 섬기고 있다.

전도 많이 하는 공동체라는 소문도 자자하다. 매주 여호수아공동체 1개 그룹이 양재역과 강남역 주변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다. 소외되고 상처 입은 이웃들을 쉽 없이 찾아가 섬기고 보살피고, 안아주는 여호수아공동체는 영혼의 반창고다.

사랑도 주고, 꿈도 주는 보육원 사역

여호수아공동체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꽃보다 아름다운 사역이 있다. 바로 보육원 사역이다. 섬긴지 2년 정도 됐다.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 여러 보육원을 알아봤다. 하지만 일회적 관심으로 끝날 것을 우려한 많은 보육원에서 도움을 거절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일회적 관심으로 끝날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찾고 찾은 곳이 바로 ‘명진들꽃



여호수아공동체 청년들이 어린이대공원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랑보육원’이다.

여호수아공동체가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 만해도 보육원생들이나 관계자들은 자기만족을 위해 봉사하러 왔다고 생각했다. 그 때문에 보육원 아이들과는 1년 반 동안 만나지도 못하고 청소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오

는 여호수아공동체 자체들의 모습에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었다. 아이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 여호수아공동체의 진심이 통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가을부터 보육원 아이들과의 멘토링, 영유아 돌봄, 나들이 등을 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도 보육원 아이들과 여호수아공동체 청년들이 함께 특별한 외출을 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이들과 어린이대공원을 찾았다. 여호수아공동체 청년 30명과 보육원 아이들 20명이 손을 잡고 나들이를 갔다.

화창한 봄 날씨에 어린이대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여호수아공동체 청년들은 행여나 인파속에서 아이들의 손을 놓칠까 꼭 붙잡고 걸었다. 청년들이나 아이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동물공원을 본다는 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여기저기 구경하며 신난 아이들의 표정이 봄 햇살보다 눈부셨다.

가다리던 점심시간. 청년들은 아이들 먼저 챙기느라 여념이 없다. 혹시나 아이들이 더울까봐 손부채질을 멈추지 않았다. 젓가락질이 서툰 아이들에게는 음식을 먹여줬다. 그렇게 아이들을 챙기는 모습이 영락없는 가족이었다.

보육원 사역팀장 진윤정 자매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 속상하다”고 했다. 그녀는 보육원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걱정했다. 그것 때문에 같은 또래들보다 학업성취가 더딘 것 같아 염려가 됐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여호수아공동체에서기가막힌 아이디어를 냈다.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고, 직업체험을 준비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사랑도 주고, 꿈도 주고 싶어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이들은 오는 사람들을 다 기억해요. 한두 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섬겨주시길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02-570-7463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청년, 하나님을 만나다 박한솔 자매

여호수아공동체 연가(戀歌)

나는 2011년 가을 날 처음 여호수아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가 끝났지만 나는 그 자리를 뜰 수 없었다. 아니 뜨고 싶지 않았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 서 천 날 보다 좋사오나...’라는 표현을 알 것 같았다. 예배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여호수아공동체에는 주님의 기쁨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있다.

내가 여호수아공동체에 정착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신실한 순모임이었다.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를 다니며 다양한 방식의 순모임을 경험했다. 그러나 여호수아공동체 순모임은 달랐다. 말씀에 깊이가 있었다. 매주 성실하게 순모임을 준비해 오시는 순장님 덕분에 말씀으로 맛보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또 각자의 삶에서 받은 은혜들을 가득 들고 와 풀어놓는 순모임은 지방에서 상경해 친구가 없는 나에게 가장 즐겁고 힘이 되는 시간이었다. 말씀으로 하나된 순모임은 신앙의 깊이와 마음을

여는 정도가 달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귀한 자리였다.

순모임으로 기분을 탄탄하게 다지기 시작한 이후 나는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다. 순장으로, 일대일 양육자로, 그룹임원으로, 공동체 MC로 섬겼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름 아웃리치도 섬겼다. 그야말로 축복의 시간들이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사역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면서 나를 내어드릴 수 있었던 행복한 순간들이었다. 그 순간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때론 상처받을 지라도 여호수아공동체에 오면 회복되고 치유된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크고 작은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이들을 발견할 때마다 감탄한다. 연약함과 어려운 상황과 상관없이 그들을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신나고 즐겁고 자유롭게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다. 온몸이 부서져라 달리고 또 달리는 교역자님들의 삶과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 같은 멘토님들께

서 해주시는 조언도 최고다. 그분들의 격려가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켜주었다.

주님은 지쳐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리고 다시 달릴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 여호수아공동체에 함께 하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하다. 이 젊음의 시간이 결코 영원하지 않은 것임을 잘 안다. 그래서 청년일 때 누릴 수 있는 것들, 청년의 때에 조금 더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것들을 후회 없이, 아낌없이 내어 드리고 싶다.

여호수아공동체는 정말 축복받은 공동체다. 그곳에 소속된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낮은 곳, 더 낮은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멈춰서는 안 된다.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 여호수아공동체, 청년 부흥의 롤 모델이 되자. 이 세대를 새롭게 깨우고, 통일 한국의 주체가 되자. 나아가 온누리를 품은 사도행전적 공동체가 되자.

5월 공연소식

뮤지컬로 만나는 순교자 문준경

5월 17일까지 LIG 아트홀



극단 쏠라이트 미션의 뮤지컬 문준경.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3시와 7시, 일요일은 오후 5시에 시작된다. 가격은 4만 원.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는 전라남도 신안 증도를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킨 인물이다. 그를 통해 주된 1,700명 중 90% 이상이 크리스천이 되었다. 그녀의 인생은 초라했다. 실패한 인생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뒤 달라졌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의 인생영역을 뮤지컬을 통해 만나보자. 크리스천에게는 새로운 도약과 재충전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형언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선물꾸러미다.

문의: 010-9855-98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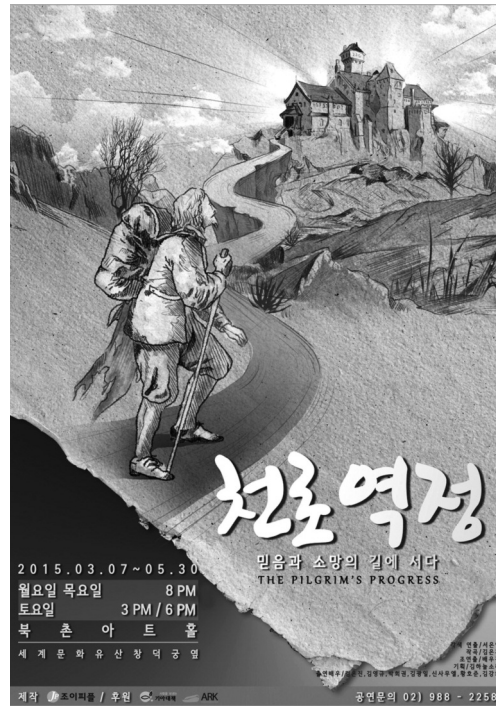
“달빛도 까만 밤. 섬마을에 파도가 하얗게 밀려온다. 갯바위에 고무신, 무심히 벗어 놓고 새파란 절규의 그녀. 세월 지나 어느 밤 섬마을에 빨간 파도 넘실대던 날. 사랑에 닿아진 고무신 고이 놓고 이제는 초록빛 노래로 떠난 그녀. 생명의 씨앗 되어 이제 천국의 섬에 피어난 그 또 하나의 열매.”

순교자 문준경을 뮤지컬로 만날 수 있다. 극단 쏠라이트 미션이 뮤지컬 손양원과 구원열차에 이어 ‘뮤지컬 문준경’으로 관객들을 찾아왔다. 뮤지컬 문준경은 연출가(안무) 심윤정과 작곡가 조라성이 손을 잡고 감미로운 노래에 생동감 넘치는 안무를 입혔다.

공연은 5월 2일(토)부터 17일(주)까지 합정 LIG 아트홀에서 막 오른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오후 2시, 목요일과 금요일은 오후 8시,

연극으로 만나는 천로역정

5월 30일까지 북촌아트홀



연극으로 재탄생한 존 번연의 <천로역정>.

존 번연의 <천로역정>이 연극으로 다시 태어났다. <천로역정>은 기독교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고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첫 번째 번역소설이기도 한 <천로역정>이 한국에 온지 120년을 맞아 연극으로 만들어졌다.

내용은 이렇다.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던 필그림(순례자)은 어느 날 도시가 신으로부터 멸망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는다. 필그림은 가족과 이웃들에게 신이 내린 멸망의 경고문을 전달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무시한다. 미쳤다고 비아냥댄다. 사람들의 반응에 절망한 필그림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 생명이 있는 하늘성을 향해 홀로 멀고 먼 여행길에 오른다.

그는 길을 떠나자마자 낙담의 수렁에 빠지고, 멸망의 도시 지배자 아볼루온과 결투를 벌이게 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과연 필그림은 무시한 하늘성에 도달할 수 있을까. 진리를 찾아 떠나는 순례자의 여정이 100분 동안 그려진다. 완성도 높은 멋진 연극이 눈 앞에서 펼쳐진다. 인간의 생각과 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열쇠가 성경에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청교도적 믿음을 담은 연극 천로역정을 만나보자. 거룩하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성장하는 절호의 기회다.

공연은 5월 30일까지 창덕궁 옆 북촌아트홀에서 막 오른다.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 6시에 시작된다. 가격은 3만 원. 문의: 02-988-2258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목회 칼럼 이서진 목사(서빙고 대학부)

토요일 저녁 6시 20분. 수많은 프로그램 개편과 출연진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황금시간대를 장악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무한도전’이다. 사람들은 무한도전을 보며 울고 웃고 감동을 받는다. 리더십 전문가들은 진행자 유재석의 리더십을 연구하고, 기획자들은 김태호 PD의 기획력과 운영방식에 대해 연구한다. 그야말로 전설의 프로그램인 셈이다.

얼마 전 무한도전에 출연한 개그맨 김영철의 대사가 큰 행을 뒀다.

“힘을 내요 슈퍼파워!”

별 대단한 말도 아니네 20대와 30대 청년들은 ‘힘을 내요 슈퍼파워’에 열광적으로 반응했다. 한동안 SNS에는 ‘힘을 내요 슈퍼파워’ 패러디 물이 가득 채워졌다.

도대체 왜 그러도 열광한 것일까. 청년들의 상

황과 환경을 통해 바라보면 이해가 된다.

2015년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경제적으로 전 국가적 실업사태로 인해 비전 대신 생존을 갈망하게 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양극단으로 나뉜 매체의 선정적 보도로 보수든 진보든 상대 진영에 대해 분노를 가지게 되었다.

문화적으로는 회의주의(Skepticism)와 허무주의(Nihilism)가 대세를 이루면서 콘텐츠를 소비할수록 만성적인 공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영적인 침체와 탈진까지 겹치면 다시 일어날 의욕을 상실한다. 이것이 오늘날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삶이다. 이런 상황에서 ‘힘을 내요 슈퍼파워’라는 말은 ‘힘을 내려면 비현실적인 슈퍼파워라도 필요한 현실’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말이 격려가 아닌 농담이 된 것이다. 청년들은 힘을 낼 수도, 슈퍼파워를 가질

수도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성경 속에도 이런 세대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셨을 때 남자만 5천명이 모였다. 로마 정부는 당시 야간집회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병이어 집회는 주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서신학자 김화권 교수는 대낮에 남자만 5천명이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갈망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유대 땅에 충분한 일자리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했다. 즉 대규모 실업사태였다.

당시는 경제적으로는 실업, 정치적으로는 식민지,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에 의한 혼란기를 겪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양식도 내일을 바라볼 희망도 없었다.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고,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적인 하기와 내면적인 공허와 영적인 절망을 바라

보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차고 넘칠 정도로 양식을 주셨다. 그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빵이 아니라 소망이었고, 물고기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였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는 5천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간절히 필요하다.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 영적인 소망과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소원한다.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한다. 교회가 바로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슈퍼파워가 되기를 기도한다.

“힘을 내요 슈퍼파워!”

네팔 지진 피해지역 간다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의료·구호팀) 22명 파견
오늘 서빙고 1부 예배에서 긴급구호팀 파송식

대지진 앞에 아비규환이 됐다. 지난 달 25일(네팔 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81km 떨어진 곳에서 리히터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1934년 카트만두 동부지역을 강타한 리히터 규모 8.0 이상 대지진으로 10700명이 숨진 이후 81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참사다.

현재(네팔 정부 4월 28일 발표 기준) 사망자 4450명, 부상자 8000명이 발생했다. 가옥과 도로,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을 포함한 수많은 유적지가 파괴되었다. 이번 지진은 네팔은 물론 인접 국가에도 피해를 줬다. 인도와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를 포함하면 피해는 날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급기야 네팔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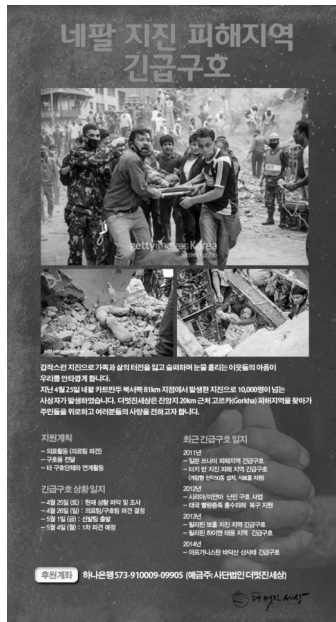
온누리교회도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NGO 더멋진세상을 중심으로 구성된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이 내일(4일) 현지로 급파된다. NGO 더멋진세상은 네팔 대지진이 발생한 다음날(26일) 의료팀

과 긴급구호팀 파견을 결정했다. 지난 1일에는 선발대가 출국해 현지 선교사와 함께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이 투입될 지역 답사를 마쳤다.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은 의료팀 7명(의사 5명, 간호사 2명)과 긴급구호팀 15명(현지 선교사 4명, 청년부 7명, 본부 3명, 영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5월 4일부터 15일까지 현지에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고, 구호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이 투입될 지역은 지진 진원지에서 20km 떨어진 고르카(Gorkha)다. 그곳에서 지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할 예정이다. 생필품과 임시 주거용 천막과 담요, 의약품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오늘(3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1부 예배에서는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 파송식이 있다.

한편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 중심에 있는 NGO 더멋진세상은 2010년 12월 창립된 이래 누구보다 먼저 지구촌 재난 현장에 긴급구호팀을 파견해왔다.



고통 받는 지구촌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애쓰고 있다. 2011년 일본 쓰나미 피해지역 긴급구호를 시작으로, 2012년 태국 홍수피해 복구 지원, 시리아, 미얀마 난민 구호 사업, 2013년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긴급구호, 2014년 아프가니스탄 산사태 긴급구호 등에 앞장섰다.

네팔 후원: 하나은행 573-910009-09005(NGO 더멋진세상)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선교와 일대일 세미나

5월 9일 14시, 도곡교육관 2층

일대일사역팀에서 5월 9일 14시 도곡교육관 윤유홀에서 ‘선교와 일대일’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일대일위원회에서는 통역자 없이 외국어로 일대일 제자양육 할 수 있는 양육자를 배출하기 위해 ‘외국어 일대일 사역자학교’ 수강생을 모집했다. 이번 세미나는 일대일사역자학교 27주 과정을 마친 수료생(영어 31명, 일본어 30명, 중국어 16명)들을 양육현장으로 파견하기 앞서 선교지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본 사역자들의 생생한 사

례들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선교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형태의 일대일 제자양육 관련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도 배운다.

세미나에서는 김화수 선교사(중국), 박석봉 선교사(케냐), 박경락 집사(안산M선교) 등이 사례 발표를 한다.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 수료생들과 외국인 일대일 제자양육에 관심이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3215-3517

/ 정현주 기자

온누리요양센터 증축동 기공 감사예배

하반기 준공 ... “어르신들께 더 건강한 삶을”

온누리요양센터가 지난달 29일 ‘증축동 기공 감사예배’를 드렸다. 증축동 기공 감사예배는 찬양, 송영범 장로의 대표기도, 이재훈 목사의 메시지 순으로 진행됐다.

송 장로는 대표기도에서 “이번 증축을 통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이어 이재훈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사슬과 결박을 풀어 주실 것”이라며 섬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곽금봉 원장(온누리요양센터)은 “새로운 공간에서 예배와, 물리치료,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어르신들께 더 건강한 삶을 선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에 문을 연 온누리요양센터는 현재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다. 증축동은 올해 하반기에 준공된다. 50명의 어르신들이 추가 입소할 예정이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온누리복지재단 자원봉사자 모집

온누리복지재단 산하시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과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청소년 및 성인이다. 개인이나 단체 지원도 가능하다.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경우 봉사시간을 인정해준다. 자세한 자원봉사분야는 아래 표 참조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 봉사활동 모집내용(평일/토요일/주일)	순/순원 봉사활동 모집내용
전화봉사	복지관 경로식당
‘더 좋은 이웃활동’ & ‘더 좋은 용산구’ 캠페인 활동	용산구 내 경로당 점심식사 준비
청신호지킴이	강사활동
가정방문	가정방문
환경미화	환경미화
데이케어 보조프로그램	은퇴의료인의 건강지킴이활동
핸드폰 교육	‘더 좋은 이웃활동’ & ‘더 좋은 용산구’ 캠페인 활동
스마트운동기기	심리상담
사랑뜨개 활동	‘멋쟁이 요리교실’ 요리강사 활동
경로당	1순 1어르신 결연사업
건강차 만들기/뽕 만들기 프로그램	

문의: 02-794-6100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청소년 봉사활동 모집내용(평일/토요일/주일)	
전화봉사	공연 및 연주활동
‘더 좋은 이웃활동’ & ‘더 좋은 용산구’ 캠페인 활동	미술활동
안내상담	방송반 활동
엑세서리 만들기	텃밭 작물 재배
美미용활동	환경미화
요리활동	마사지
세상읽기	생활지원
동부노래방	기타
치료레크레이션	

문의: 02-3407-2747

지진 피해 입은 네팔은?

네팔은 아시아 히말라야 산맥 중앙부에 위치해 있는 나라다. 2008년 왕국에서 공화국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정식 이름은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다. 세계에서 가장 최근에 민주공화국이 된 나라다. 수도는 카트만두다. 전체 인구는 약 3000만 명 정도 된다. 종족은 아리안족이 80%, 티베트 몽고족이 17%다. 공용어는 네팔어다. 네팔은 부처의 탄

생지이지만 불교도는 인구의 10%에 불과하다. 힌두교가 약 80%다. 인도와 함께 대표적인 힌두교 국가로 꼽힌다. 인구의 95%가 농촌에 살고, 노동인구의 90%가 농업에 종사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400달러 정도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다. 네팔 북부는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8000m급 산들이 즐비해 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네팔은 신의 나라로도 유명하다. 섬기는 신의 수가 3억 3천만가지나 된다고 한다. 인구의 10%가 넘는 수의 신이 있다.

CGNTV 드림온 맘(Dream-ON MOM) 행사 개최

여성 중보기도팀, 여성 운영위원, 여성후원자 등 참석

CGNTV가 드림온 맘 행사를 개최했다. 드림온 맘(Dream-ON MOM) 행사는 CGNTV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는 여성들의 연합모임이다. 지난달 27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린 행사에는 여성 중보기도팀, 여성 운영위원, 여성후원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CGNTV를 후원하고 있는 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중보기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세계적인 셀리스트 김두민 씨와 클라리넷 연주자 이승권 씨의 협연, CGNTV 유재건 대표와 정상건 운영위원장, CGNTV 실행위원장으로 구성된 ‘232 트리오’의 축하공연, 유 대표의 CGNTV 비전 나눔, CGNTV를 위한 중보기도 등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



CGNTV를 위한 여성연합기도모임.

목사는 “CGNTV가 여성중보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연진’을 달아 CNN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방송국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류석인 권사는 “CGNTV를 위해 베풀 하나라도 놓겠다는 심정으로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고 간증했고, 황명덕

권사는 “3년 쯤 기도회에 참여하다 보니 첫째, 셋째 월요일 중보기도회에 빠지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진다”면서 “더 많은 분들이 중보사역에 동참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2-3275-9304

제1047호 | 2015년 5월 3일(주일)

■ 조도(鳥島)에서 온 편지

“이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도(鳥島)에서 목회하고 있는 윤현수 목사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북공동체 김선택 장로님께서 지난 3월 1일자 온누리신문에 저의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그 이후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후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조도의 여러 섬들을 배를 타고 이동하며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 낡아 운행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노후된 ‘선교선’을 새로 건조하기 위해 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미흡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건조한 배는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었습니다. 단돈 100만 원도 만들 수 없는 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2014년 사역을 마치고 오래되서 위험한 배를 처분하자 가장 먼저 애타하며 걱정하신 분이 바로 온누리교회 성북공동체 김선택 장로님 내외분이었습니다. 아마 “저 목사님이 믿음이 있는 거야, 아니면 무모한 거야?”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김선택 장로님은 성북공동체를 동원하셔서 기도로 동참해 주었습

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사정을 온누리신문에 글을 기고하면서 알려셨습니다. 장로님의 글을 읽으신 많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았으면서 말이죠. 기도 후원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든든했는데, 금전적으로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에 여러분들의 헌금을 더해 드디어 4월 27일 선교선의 잔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고흥 녹동항에서 아내와 함께 배를 찾아 시동을 켜고 출발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선장님께 맡겨 팽목항으로 가져다 달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지어진 배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한 번도 우왕한 적 없는 고흥바다를 건너 완도를 지나, 진도 조도에 4시간 만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처음에 다녔던 팽목항도라고 하는 미역섬도, 선교선이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한 가사군도의 작은 섬들도 마음 놓고 순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윤현수 목사(화평낙도선교센터)



선교선 위에서 윤현수 목사 부부.

■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 간증

신앙심에 불을 지필 수 있었다

/ 한대수 성도(신용산공동체)

나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백한다. 처음 시작은 걱정과 부담뿐이었다. 공부해야 하는 내용도 많고 암기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양육 시간이 다가올수록 “어떡하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라며 초조해했다.

나는 장로인 아버지와 권사인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모태신앙이다. 부모님을 따라 자연스레 교회에 다녔다. 그러나 늘 무엇인가 부족했다. 무늬만 신앙인이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가는 동안에도 주일예배를 간성으로 드렸다.

지난 2006년 결혼 9년차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그토록 원하던 자녀를 품에 안았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이였기에 엄청난 기쁨이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동시에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 나쁜 일은 앞치는데 덮치는 것이 세상일인가 보다. 맞벌이를 하느라 아이를 처가에 맡기고 주말마다 데려오는 생활을 했는데 처가집에 불이 나서 잿더미가 되어 버렸다. 다행히 장인이어른과 장모님, 아이는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은 연이어 일어나는 고통과 시련을 함께 견디며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하나님, 제게 죄가 있으면 저에게 벌을 내려 주

십시오. 가족들이 힘든 것을 못 보겠습니다.”

이 힘든 시간이 속히 지나가길 바랐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그동안 진정으로 믿음생활을 하지 못한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던 중 2013년 어느 설교 말씀이 내게 큰 힘과 깨달음을 주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했다. “인간은 혼자 믿을 수도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때 그 깨달음과 신념으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고 순모임도 나갔다.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함께 하는 즐거움을 깨달았다. 신실한 목상을 통해 내 마음 깊이 잠재되어 있던 주를 향한 신앙심에 불을 지필 수 있었다.

일대일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나의 믿음과 정체성을 확인해 본다. 나는 온누리교회 성도로서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심과 애정으로 양육해주신 양육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의료선교팀 아웃리치 간증



/ 윤상엽 집사

봉사는 희생이 아니다

“사모님! 이 돈은 절대 목사님 주지 마시고 헌금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 4명과 사모님만을 위해 쓰셔야 합니다!”

의료팀원 모 선생님이 수표를 꺼내 사모님에게 황급히 전하고는 도망치듯 저만치 가셨다. 강원도 화천 평강성결교회 이광훈 목사님 내외분은 40대 초반이다. 네 명의 어린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주일 오전 9시에는 용사교회에서 군 장병들을 섬기고, 11시에는 어르신 몇 분과 가족들을 예배당에 앉히고 예배드리고 있다. 과외 한번 시켜주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이 참 감사하다고 하신다.

심하게 낡은 예배당은 우연히 TV 프로그램을 보고 이광훈 목사님 내외를 알아본 동창이 무상으로 수리해준 덕분에 이제는 남부러울 게 없다고 하신다. 문제는 사택이다. 교회 옆 사택은 다 쓰러져 가고 있다. 처음에 사택을 보고 창고인줄 알았다.

“사택이 창고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당을 고치고 나서 알게 모르게 주변 목회자님들 보기에 송구스러웠는데 사택이라도 낡은 채로 있으니 덜 미안합니다.”

시골 교회와 군인 교회를 섬기느라 힘들지 않느냐는 물음에 미소로만 대답하신다. 이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은 충남 예산의 한 작은 교회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의료선교팀(BEE

팀)에게 꼭 방문해서 도와달라고 부탁한 목사 내외다. 교회를 추천해준 목사님의 말씀대로 정말 작고, 열악한 미자립교회였다.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은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 탓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며 안타까워하셨다. 그런 목사님에게 온누리교회 의료팀의 방문은 천군만마가 따로 없었다. 청년회와 부녀회장님께 영양제 주사를 놔주고, 노인회장님의 처진 눈을 쌍꺼풀 수술을 통해 시야를 띄어주었기 때문이다.

“작년 온누리교회 의료팀이 방문하고 난 이후에 제가 마을에서 얼마나 목에 힘주고 다녔는지 아십니까? 이제 어르신들도 온누리교회 의료팀 또 언제 오냐고 물어 옵니다. 영정사진도 꼭 찍고 싶다고 예약도 하십니다.”

마냥 기뻐하시는 목사님의 미소를 보고 있노라면 새벽 6시에 일어나 500kg가 넘는 짐을 교회버스에 옮겨 싣고 3시간을 달려 간 것이 전혀 힘들지 않다. 10여 명의 의사와 10여 명의 간호사와 약사 그리고 미용팀과 일반 참가자 20여 명과 함께 섬기며 주일을 보낼 수 있어 기쁘다. 희생과 봉사에 대해 칭찬해주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봉사는 절대 희생이 아니다. 스스로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봉사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장(場)이 바로 온누리교회 의료선교팀 국내 아웃리치다.

■ 유아세례 간증



/ 아이: 권시온 부: 권대성 모: 후지모토 카나코

시온이를 위한 기도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 우리 부부도 아이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많이 했다. 그렇게 지은 이름이 바로 시(詩)자에 따를 올(鏘)자를 써서 시온이다. 시편 기자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처럼 따뜻한 가슴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소망하며 지었다. 시온이가 살아가면서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겪을 것이다. 그래서 흔들리는 순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시온으로 향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일본식 이름이기도 하다. 일본인 아내의 영향이다. 시온이라는 한자는 한국어나 일본어 모두 동일한 발음으로 읽힌다. 시온이의 이름에는 많은 의미가 있다.

우리 부부는 첫 아이를 잃고 정말 큰 상심을 했었다. 또 시온이를 임신한 아내가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쓰러졌었다.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가 끝날 때까지 아내와 아이를 걱정하면서 기도도 밤을 새운 날도 있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우리 부부는 하나님의 선물 시온이와 만났다.

부모 나이는 아이와 같다고 한다. 내 나이는 불혹을 넘겼지만 부모로서 나이는 아이와 같은 9개월이다. 아이와 함께 새로운 것들을 배우며 성장하고 있다. 시온이가 아파서 밤새 뜬눈으로 지새울 때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는 하나님과 마주하게 된다. 시온이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장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묵상하게 된다.

시온이를 통해 더욱 기도하게 된다. 부모로서 시온이에게 물질적인 것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세상의 가치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시온이를 방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이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고, 지켜달라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문득 어머니의 기도가 떠오른다. 어머니는 형과 나를 위해서 늘 시편 36편 말씀으로 기도해주셨다. 이제 어머니의 기도를 내가 시온이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시온이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무엇보다 시온이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장로칼럼 이한열 장로(일대일위원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막내 고모가 감리교회 권사였다. 고모는 늘 친정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 나를 포함한 조카 세 명이 고모의 첫 전도대상자였다. 그중 제일 만만한 사람이 나왔다. 15년 남게 기도해도 꿈쩍도 안하던 내게 간곡히 말했다. “한열아, 고모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 살아있는 동안 네가 소원 하나 들어줘야겠다. 교회 나가 예수 믿어라!”

나에게 막내 고모는 엄마 같은 존재다. 교회 나간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소원 한번 들어드리라고 걱정하고 1년만 나가기로 약속했다. 그 교회가 바로 온누리교회다. 고모 소원을 들어 드리려고 교회에 나왔지만 이왕 다니는 거 열심히 다녀보자고 생각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다 했다. 새가족 등록 과정도 밟았다. 하나님의 가정 훈련학교 8기도 수료했다. 일대일 제자양육도 받았다. 기도훈련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도 마쳤다. 전도학교까지 수료했다. 특히 일대일 제자양육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행운이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主)로 영접하게 되었다. 그러던 내가 지금은 장로라는 과분한 직책까지 맡고 있다. 단언하건대 내가 온누리교회를 만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대박이다.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난 것도, 성숙한 신앙의 선배인 장로님들과 전사 같은 권사님들을 만난 것도, 좋은 공동체 식구들을 만난 것도 모두 대박이다. 무엇보다 우리 집안의 66%가 예수 믿게 되었다. 막내 고모의 기도제에 대한 응답이 분명하다.

처음 하용조 목사님과 만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새가족반 마지막 주 과정이었다. 하용조 목사님이 오셔서 새가족들에게 빙 둘러앉아 하시더니 말을 거셨다. “아마 오병이어의 현상이 이런 모습일

것 같네요” 당시에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다. 그냥 수많은 목사들 중 한 명인가보다 생각했다. 하용조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우리 교회에서 3년 동안 양육과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하실 분들은 등록하셔야 됩니다. 첫째, 섬기던 교회로 다시 가서 섬길 분들은 등록해도 됩니다. 둘째,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실 분은 등록하십시오. 셋째, 선교사로 나가든지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후원하실 분은 등록해도 됩니다. 넷째, 3년 후 다 배웠으면 국내건 해외건 떠나세요.”

그 말이 정말 멋있고, 대장부 같았다. 그 말이 지금도 내 마음에 살아있다. 교회에 등록은 했지만 사실 평생 예수와 관계없이 살던 나였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집요하게 기도했다. “고모가 하늘과 땅의 주인은 당신이라고 했습니다. 제발 저를 꼭 만나주십시오. 직접 들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생떼 쓰며 기도하던 어느 주일 3부 예배 때였다. 갑자기 본당 안이 환해졌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 어떤 형체도 없이 빛만 가득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다. “한열아, 네가 말하는 조물주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지었노라.”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날 이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20년 전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지금 장로가 되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말이 없다. 1년만 버티어야 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늘에서는 나의 1년 과정이 끝나지 않았노라.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장로답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권사칼럼 홍정희 권사(에zell교회 대표)

나는 온누리교회와 함께 성장했다

나는 1988년부터 28년 동안 온누리교회를 다녔다. 그동안 잊을 수 없는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아주 많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왔을 때였다. 당시 나는 새신자 교육을 받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만 참석하던 성도였다. 나는 교통신고를 당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루는 내 삶이 너무 힘들어 현금봉투에 간단한 기도제목과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 현금함에 넣었다. 그리고 순으로 연결이 되었다. 같은 순원이던 장로님이 나를 수술해주시고, 순식구들은 중보기도로 나와 함께 해줬다.

어느 날, 하용조 목사님이 내게 하와이 코너에서 CDTS(Crossroad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훈련을 받으라고 권유하셨다. 그렇게 그곳에 가게 되었고, 선교사님들과 만나게 되었다. 코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조금씩 건강이 회복되었다.

1995년 한국에 돌아와 에zell교회를 설립했다. 이후 하용조 목사님과 함께 여러 선교지를 다녔다. 개인적으로 멘토링을 받고, 선교에 대해 배우면서 선교사들을 향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 선교현장에서 선교사와 현지인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수없이 진행했다. 현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었다. 많은 기적과 귀한 간증들이 터져 나왔다. 섬겼던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뻐했다.

수많은 온누리 목회자들의 섬김과 사랑이 없었다면 단 하나의 사역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20년 전 YWAM에서 만나 현재까지도 동역하고 있는 Chris Hamson 목사님, 그리워도 될 수 없는 하용조 목사님, 김사무엘 목사님 등 많은 분들이 생각한다. 이재훈 담임목사님께서는 힘들 때마다 깊은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고 계신다. 목회자의 사랑과 헌신, 이 성도들에게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온누리교회 성도로서 에zell교회 팀들과 함께 온누리사역축제(OMC), 월로우크릭 컨퍼런스 등 크고 작은 사역들을 조용히 섬겼다. 이외에도 선교학교, 중보기도학교, 내적치유 세미나, 사이닝글로리, 알대일, 큐티사역, 어머니학교, 토성회(현 CEO School)의 초기모임 등 많은 프로그램과 사역을 섬겼다. 그 많은 경험들이 선교 현장에 필요를 채워주는 밑거름이 되었다. 서빙고와 양재 청년부 멘토를 하면서는 ‘Hug the World’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시골 청년들에게 선교의 꿈을 심어주는 사역이다.

나는 온누리교회라는 좋은 교회, 목회자, 교육 프로그램, 에zell교회와 함께 성장했다. 사역의 열매 뒤에는 고난과 역경도 많았다. 그 때마다 신실한 목회자님들의 위로와 격려, 끊임없는 중보기도가 힘이 됐다. 부족한 나에게 여러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온누리교회 성도이자, 에zell교회 대표로서 주어진 일에 충실한 종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



신앙에세이 최성석 목사(이수공동체)

믿음의 경주(競走)

몇 년 전 한국영화 ‘글러브’를 본 적이 있다. 그 영화는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만 모여 있는 충주성심학교 야구부 이야기다. 봉황기 야구대회에 출전하는 충주성심학교 야구부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이다.

충주성심학교 야구부에 퇴물 선수가 감독으로 온다. 그는 과거 최고의 투수였던 사람이다. 그는 그곳에서 잠시 머물면서 자신에 대한 세상의 부정적 시선이 잠잠해지면 현역으로 복귀하려고 했다. 그런데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의 야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사랑을 보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야구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게 된다. 그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다. 감독이 봉황기 야구대회를 앞두고 경기가 열리는 텅 빈 운동장에 야구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말한다.

“잘 보라. 그래 아무것도 없다. 그라운드에서는 숨을 곳이 없다. 실수해서 부끄럽다고 너희가 듣지 못하는 것이 창피하다고 숨을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여기 그라운드다.”

그렇다. 우리도 숨을 곳이 없는 세상이라는 그라운드 위에 있다. 믿음의 경주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다. 숨을 곳

나 없는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열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믿음의 경주를 하는 나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 실수하면 야유했고 조롱을 보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은 칭찬하지만, 잘못하거나 실수하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 경기에서 한국은 4강까지 오르는 쾌거를 이뤄냈다. 그 가운데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선수가 있다. 바로 안정환 선수다. 16강전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그는 페널티킥을 실축한다. 당시 내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야유를 보냈고 조롱까지 했다. 이탈리아가 먼저 한 골을 넣으면서 안정환 선수에 대한 비난은 더 과격해졌다. 패색이 짙은 후반전 막판에 설기현 선수가 극적인 동점골을 넣어 연장전에 돌입했고, 아 이러니하게도 페널티킥을 실축한 안정환 선수가 헤딩골로 대한민국이 역전승했다. 안정환을 비난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

송하기 시작했다. 안정환 선수는 실수를 했음에도 끝까지 경기에 최선을 다했다. 찬스를 기다리면서 말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선수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수교체에 대한 주권은 감독에게 있다. 당시 히딩크 감독은 그를 교체할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줬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우리가 실수해도 회복시켜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야유와 조롱을 보내고, 그만두라고 종용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우리를 응원해주신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답이 나오지 않는 죄인들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중략)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히 12:2-3).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기도입니다. 모세의 태도는 불순종처럼 보이지만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처럼 보이는 불순종이 있고, 불순종처럼 보이는 순종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세 가지 근거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11절).

모세는 하나님의 강한 결단 속에도 은혜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데 은혜의 문을 어디서 찾아야 하나. 가만히 본문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와 의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 진멸하면 되는데 모세와 의논을 했다는 것은 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획을 말씀하시고, 생각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는 가능성을 봤을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크게 화를 냈다면 변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모세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실행하면 됩니다. 모세는 여기서 은혜의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10절) 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말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흥분하면 말리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려달라는 것입니다.

다. 말리면 안 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문은 막으셨는데 뒷문은 열어 두신 것 같습니다.

어느 주석가는 “내가 하는 대로 두라”는 말씀을 중보기도에 대한 초대라고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이라도 그 속에 작은 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과 대화하셨다는 것, 의견을 구하셨다는 것, 흥분하셨고, 진노하셨지만 ‘나를 두고 가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중보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한 것은 불충실이 아니라 진정한 충성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함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의 힘

둘째,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운명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진멸되면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도제목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킨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운명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

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호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는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약속의 신실함을 붙잡고 호소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마음을 접으셨습니다”(14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것은 모세의 말을 듣고 누우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화개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한대로 진멸하셔도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사람 의견을 존중해서 문제를 풀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미래를 열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진노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중보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운명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한반도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서 귀 기울이시고, 대화하면서, 마음을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중보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활용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 역사를 바꾸고, 민족의 미래를 바꾸고, 열방의 미래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마땅히 내려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둬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Talk Talk 열왕기 최원준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열왕기 7 :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은 후 왕국이 분열하면서 생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다(재위기간 주전 922~901년).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대표 지파인 에브라임 출신으로 과부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씩씩하게 잘 자랐다. 젊은 나이에 ‘큰 용사’라고 불릴 만큼 리더십이 뛰어났고 부지런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밀로 성을 건축할 때 책임자로 세웠다. 그러나 얼마 후 솔로몬은 그를 죽이려고 했다. 왕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누군가? 부국강병을 이룬 왕이다. 그런 솔로몬을 대적한다? 도대체 뭘 믿고 그랬을까? 사면인즉 이렇다.

어느 날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아를 길에서 만났는데,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솔로몬의 나라가 찢겨질 것이고, 열 개 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택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였던 왕국이 두 나라로 갈라졌는지에 대해서 아히아는 분명히 말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히아는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말한다. 다윗과 같은 왕이 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네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전에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서(삼하7장) 차마 그를 버릴 수는 없으셨다. 대신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택해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셨다. 여로보암은 이 계시를 믿고 솔로몬에게 반기를 든 것 같다. 게다가 솔로몬이 부과한 강제 노동과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에 불평이 쌓여있었다. 특

히 북쪽 지파들의 불평이 심했는데,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했을 때 세겜에서 강제 노동과 명예를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바로 이들이다(‘온 이스라엘’로 표현됨). 르호보암이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더 강압적 정책을 쓸 것이라고 하자, 결국 이들은 다윗의 후손들 즉 유다 지파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옹립한다. 아히아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행하느냐의 여부였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다윗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한 첫 번째 일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도 두 개씩이나. 비록 정치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 율법에 따라 일 년에 세 차례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다. 만약 이대로 둔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결집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며, 또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간 사람들이 르호보암의 영향을 받아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했던 것은 북이스라엘만의 성소였다.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없이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그는 금송아지를 두 개 만들어 북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벧엘’과 북쪽에 있는 ‘단’에 두었다. 그리고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고 부르면서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한다. 약 500년 전 아론의 주관 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적이 있었다. 하필 왜 송아지인가에 대해 이집트에서 숭배하던 신이라는 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긴 바알종교의 표상이라는 설 등이

있다. 출처야 어찌되었던 간에 이방종교의 요소가 가미된 것이다. 특히 바알종교는 풍요와 다산의 종교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금송아지를 출애굽의 신이라고 말할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철저히 능멸하는 일이었다. 하나님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들을 진멸시키려고 하셨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셨지만 여로보암은 철저히 이를 배신했다. 자신의 통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였다. 또한 여로보암은 벧엘과 단 외에도 다른 곳에 산당들을 지었다. 엘리야 시대의 갈멜산, 길갈 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장소다. 뿐만 아니었다. 그는 레위인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직에 일반 백성을 임명하기도 했으며, 절기 날짜를 마음대로 바꿨다.

하나님은 이에 진노하셨다. 여로보암에 대한 열왕기 기록을 보라. 그의 가증스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13, 14장). 하나님의 분노가 서려있다. 그만큼 그의 죄는 막중했다.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주전 722년 여로보암이 왕이 된지 200년 후,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다. 여로보암이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기 때문이다(왕상 14:16). 열왕기 저자는 여로보암 이후 북이스라엘의 왕 18명이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로 평가한다(왕상 15:34, 16:2·19·26 등).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숭배의 패역한 길의 대명사가 되었다. 오늘 내가 걷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